

'수적 우위' 광주, 아쉬운 무승부



광주FC 허율이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에서 열린 ACL리그 스테이지 6차전 상하이 하이강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37분 선제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ACL리그 6차전 상하이 하이강전 1대1

허율 선제골로 앞서다 뼈아픈 PK 동점골 내줘 승점 1 추가, 요코하마 이어 동아시아 그룹 2위



광주FC가 올해 마지막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하며 16강 화점 다음 경기로 미쳤다. 광주는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에서 열린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 리그 스테이지 6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선제골을 넣고 수적 우위까지 점했지만 뼈아픈 PK 동점골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승점 1점을 추가하며 2024 시즌을 마무리한 광주는 4승 1무 1패(승점 13)로 1위 요코하마에 이어 동아시아 그룹 2위를 유지했다. 토종 라인업으로 팀을 꾸린 광주는 김경민이 골문을 지켰고 김

경재와 변준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다. 좌우 풀백에는 김진호와 조성권, 중앙 미드필더에는 정호연, 박태준을 기용했다. 이희균과 최경록을 좌우 날개로, 신창무와 허율을 투톱으로 세웠다. 전반 시작 2분 만에 광주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박태준이 박스 안으로 불인공이 흘러나오며 조성권이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광주는 볼 점유율을 높여가며 홈팀 상하이 하이강을 압박했다. 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호연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이희균이 상대 골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방적인 공세를 이어간 광주는 전반 13분 허율이 올려준 크로스가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이희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쳤다. 5분 후 허율의 강력한 원발 슛은 골키퍼 손에 막혔다. 전반 37분 마침내 선제골이 터졌다. 아크 서클 인근 박태준의 직선 침투 패스를 받은 허율이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오른발 토킥으로 특 썩어 찬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간절한 집념으로 만들어낸 허율의 ACL 데뷔골이자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골이었다. 이후 허율이 울리며 광주가 리드한 채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광주는 후반 초반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후반 7분 신창무가 경합 과정에서 상하이 하이강 수비수 웨이 전의 발에 밟혀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주심의 VAR 판독을 거쳐 웨이 전에게 퇴장 명령이 내려졌다. 수

적 우위를 확보한 광주가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후반 12분 신창무의 크로스를 받은 이희균이 오른발 강슛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를 맞고 나갔다. 이후 동점을 만들기 위한 상하이 하이강의 공세가 이어지던 후반 28분 오스카가 박스 안으로 파고들 때 김진호가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키커로 나선 오스카가 가볍게 차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는 허율과 이희균을 빼고 이건희와 이강현을 투입, 전열을 재정비했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였다. 추가 시간은 9분이 주어졌 가운데 광주는 최경록 대신 김한길을 투입하며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종료 직전 마지막 프리킥을 얻은 광주는 변준수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기며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다. 광주는 내년 2월11일,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산둥 타이산과 2025년의 첫 경기이자 ACL 리그 스테이지 7차전을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AI페퍼스 22일 크리스마스 홈경기 IBK戰

'에스코트 키즈'와 추억 만든다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페퍼커피는 AI페퍼스 배구단이 오는 22일 IBK 기업은행과의 크리스마스 홈경기에서 선수단과 함께 입장할 '에스코트 키즈'를 모집한다. 에스코트 키즈란 홈경기 선수단 입장 시 선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이번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홈경기를 맞이해 만 6세부터 만 10세의 어린이 팬에게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코트 키즈 지원은 만 6세부터 만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AI페퍼스 애플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AI페퍼스 앱 '내 활동' '마이포스트'에 '#에스코트 키즈'를 포함한 제목으로 자녀가 공놀이 하는 모습을 올리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7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AI페퍼스 공식 홈페이지 및 앱(APP),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스코트 키즈에게는 선수단 동반 입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 4명의 당일 홈경기 티켓은 물론, 경기 종료 후 선수단과의 사진 촬영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AI페퍼스 굿즈, 사인볼과 파트너십 협력사인 이디야커피의 기프트 카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I페퍼스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AI페퍼스 앱을 사용하는 팬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코리안 듀오' 임성재·김주형 히어로 월드 챌린지 동반 라운딩

타이거우즈 주최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격

임성재와 김주형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개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500만달러)에 출전한다.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올해 대회는 5일부터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다.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이 출전해 나흘간 72홀 경기로 순위를 정한다. 20명은 그해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세계 랭킹 상위 11명, 지난해 대회 우승자, 초청 선수로 구성된다. 올해 대회에는 남자 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비롯해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 윈덤 클라크,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 등이 출전한다. 대회 주최자인 우즈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불참한다. 올해 마스터스와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2년



임성재와 김주형 /AFP-EPA=연합뉴스 DB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와 김주형은 대회 첫날인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시30분 같은 조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임성재와 김주형은 2022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임성재가 8위, 김주형은 10위의 성적을 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 우승 상금은 100만달러(약 14억원), 최하위인 20위를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2억원이 넘는 15만달러를 받는다. /연합뉴스

'피치클록 주자 있을 때 25초'

KBO, 2025 정규시즌 도입 피치 클록 세부 규정 공개

KBO가 '한국형 피치클록 규정'을 공개했다. KBO는 4일 "2025년 정규시즌에 도입할 피치 클록의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스크라이프존을 조정하고, '체크 아웃 스윙 비디오판독'을 퓨처스(2군)리그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3일 피치클록, ABS 존 조정, 체크 아웃 스윙의 비디오 판독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했고, KBO는 4일 이를 정리해 발표했다. 도입을 1년 미뤄둔 피치클록은 2025년 정규시즌부터 정식으로 도입한다. 여러 논의와 고민 끝에 KBO는 피치클록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 KBO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대만프로야구와 달리 '투수판 이탈'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로 정했다. 주자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을 때 20초 이내에 투구해야 하는 MLB보다 여유가 있다. 타자는 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당 타임아웃은 두 차례만 허용한다. 2024년에 시행한 ABS의 스트라이크존도 손본다. 올해 KBO의 ABS 스트라이크존은 타자의 신장에 비례해 상단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다. 존의 크기에는 변화를 두지 않고, 스트라이크존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다. /연합뉴스

광주장애인체육 발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2024년...함께 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4일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4 광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성료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포상금 전달식·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해단식도 열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올 한해 광주시 장애인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4일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종목별 가맹단체장, 장애인 유관단체장, 장애인 체육선수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62명에 대해 체육진흥상, 자원봉사상, 공로상, 홍보상, 우수모범직원상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표창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발족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후원자들과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고용에 직접 참여한 한전KPS,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알프스, 한국광기술원 등 4개 기관에 대해 안정적인 장애인 체육 선수

훈련 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담아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도 함께 열렸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과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보치아 강선희(한전KPS)가 포상금을 받았다.

전국장애인체전에서 5관왕을 달성한 양궁 이화승(광주시청), 4관왕 사격 박승우(광주시청), 탁구 김성욱(광주시청)에게도 포상금이 주어졌고,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광주시장애인사격 연맹과 단일종목 2관점 이상을 획득한 광주시장애인체육연맹,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는 '성취단체상'이 수여됐다. 광주시장애인테니스협회, 광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 광주시장애인역도연맹은 '도약단체상'을 받았다. /박희중기자